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2
SUMMER
제60호

출입국 브이로그
난민전담공무원의 VLOG

클릭! 핫이슈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출입국 쯤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나라와
나라를 잇는
1인 문화원을
꿈꾸다”

네팔인
수잔 샤키야

KOREA
IMMIGRATION
SERVIC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제2화: 열정의 날갯짓

자아 발견을 위해 도전하는 열정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때때로 다수의 선택을 따라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소수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다 보면 옳고 그름은 어느새 부예지고 확신을 갖고 열정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 자신을 믿고 자아 발견을 위한 고된 도전을 이어간 열정의 메시지를 들어본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얻은 깨달음

덴마크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이 상처를 극복해나간 과정을 담은 자전적 작품인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 세대를 거듭해 성장을 이야기하는 명작이다.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경험한 안데르센은 잘못된 곳에서 태어난 새끼 백조가 고생을 감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목격한 감동으로 그려낸다.

“아무래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저 고귀한 새들에게 날아가 볼래. 저들이 못생긴 날 죽인 대도 그게 뭐 대수인가. 오리들의 부리에 쪼여 죽느니, 암탉들에게 맞아 죽느니, 모이를 주는 소녀에게 저리 가라며 떠밀려 죽거나 한겨울 추위를 떨며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들에게 지금 죽고 마는 게 낫지.”

미운 오리 새끼는 갖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열정을 놓지 않았고 결국 남이 정한 기준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소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

오리 등지에서 태어난 새끼 백조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을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은 때로 주변 환경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다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자신을 규정하는 한계에 체념하고 주저앉는 대신 진정한 자신을 찾아 여정을 이어가는, 새끼 백조의 포기를 모르는 열정은 지금의 우리가 배울만하다. 소수의 가치는 다수가 목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다만 오리가 아닌 백조였을 뿐이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른 녹음과 밝은 햇별이 가득한 여름입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휴가 기간 동안 차가운 계곡물에
발도 담가보며 지친 마음에 여유가 스며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도 여름을 맞아
반가운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희 본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19일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각자가 지닌 다양한 이야기에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6월 1일부터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하였고,
'20년부터 중단하였던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하였습니다.

한편,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 본부는 그간의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이고
균형잡힌 난민정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readers,

Summer is here – a season of beautiful landscape filled
with lush vegetation. I strongly recommend you to enjoy
this wonderful season and give yourself a break by paying a
visit to a nearby beach.

Korea Immigration Service also has a plenty of great news
and stories to share with you as we issue this summer issue.

The professional visa scheme was improved as of 19 April
to address labour shortage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seeing a boom in recent days. This will contribute
to injecting greater vitality into the local economy.

On Together Day, which falls on 20 May,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nationals living in Korea had an opportunity
to engage with each other. Participants had an opportunity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nd develop empathy
for each other. This will serve as a foundation of creating
an environment of embracing openness and diversity and
upholding common values.

Additionally, air travel, which was mostly suspended due
to the COVID pandemic, is returning back to normal.
As of 1 June, we collaborat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ed a visa-free entry programme for four
Asian countries to attract more tourists as a way to boost
domestic demand and local economies. We also resumed
issuing C-3 short-term visiting visas and e-visas, which
have been suspended from being issued since 2020.

Meanwhile,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ing of the Refugee Act – the first of its kind in
Asia. Observing this significant day, Korea Immigration
Service had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how our
refugee schemes and programmes have progressed so far
and strengthen our commitment to fulfil our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seeking
more advanced and balanced refugee policies.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remain committed to
creating a society wher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and coexist in harmony.
I wish you a joyful summer that is filled with good energy.

Contents

2022. SUMMER / Vol. 60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제2화 [열정의 날갯짓]

02 공감 동화 : 미운 오리 새끼

우리는 때때로 다수의 선택을 따라 소수의 가치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 자아 발견을 위한 고된 도전을 이어간 어린 백조의 열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16



20



24

With

함께 만드는 공감

- 06** 랜선 여행
다시 돌아온 여름 축제
- 08** 정책 인사이트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 10** 함께, 행복하게
“나라와 나라를 잇는
1인 문화원을 꿈꾸다”
네팔인 수잔 샤키야
- 14** 정책 포커스
우리나라 난민 제도
- 16** 출입국 브이로그
난민전담공무원의 VLOG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김민서 주무관

ON

서로 통하는 공존

- 20** 출입국 zoom
경기 서남부 권역의 중심 사무소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24** 클릭! 핫이슈
‘우리 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오늘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
- 28** 글로벌 트렌드
나라별 다양한 커피 문화
- 30** 무비 TALK
다문화 영화로 보는 ‘공존’의 방식
- 32** 오늘 뭐하지?
자유롭고 고요하게 유명하는 프리다이빙의 세계
- 34** 숫자로 보는 출입국
우리 동네엔 외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올까?
- 35**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 36** KIS NEWS
-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긴긴 코로나 터널 뚫고

다시 돌아온 여름 축제

FESTIVAL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을 회복하니 여기저기서 축제
소식이 들려온다. 다시 돌아온
보령머드축제부터 은어 잡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봉화은어축제까지.
을여름을 시원하게 채워줄 다채로운
축제를 모았다.



1 머드에 풍덩! 축제에 활짝! 제25회 보령머드축제

대한민국 최대의 여름 축제가 다시 돌아온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보령머드축제가 7월 16일부터 한 달간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국적, 언어, 연령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되어 즐기는 대표적인 체험형 축제인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함께 맞물려 해변특설무대공연, 머드몬스터, 머드워터파크존 체험 등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기간 : 7/16 ~ 8/15

장소 : 대천해수욕장 일원



2 이순신 장군을 기리며 함께 참여하는 축제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

전국 10대 향토축제 중의 하나로 꼽히던 진남제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킨 여수거북선축제가 7월 29일부터 3일간 펼쳐진다. 진남제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호국문화축제로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 선양과 호국 충절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 벌써 56회를 맞은 여수거북선축제는 올해 통제영길놀이와 용줄다리기, 해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간 : 7/29 ~ 7/31

장소 :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

3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예술활동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22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도와 색다른 도전을 만나보고 싶다면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주목하자. '당연한 축제, 네트워크 복구중'이라는 주제로 돌아온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8월 11일부터 펼쳐진다.

1998년 대학로의 '독립예술제'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 연극, 무용,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이 축제는 예술가들의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 역시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수작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기간 : 8/11 ~ 8/28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및 서대문구 일대



무해, 사라지고, 있는 @연희예술극장



시도, 시도, 방 @예술공간의식주



4 봉화에서 COOL하게! 은어로 FUN하게! 제24회 봉화은어축제

은어도 잡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여름 축제가 열린다. 해마다 인기 좋고 물 맑은 봉화에서 펼쳐지는 봉화은어축제가 7월 30일 개막한다.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민물고기다. 봉화군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1급수에서 서식하는 은어를 테마로 국내 유일무이의 여름문화축제를 탄생시켰다. 올해는 은어 맨손잡이·반두잡이, 은어 숯불·그릴 구이 체험은 물론 미스터트롯 콘서트, 한여름밤의 클럽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색다른 여름 축제를 즐기고 싶다면 봉화은어축제에 발걸음해보자.

📅기간 : 7/30 ~ 8/7

📍장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재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0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것.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아울러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여행사전

단기방문(C-3) 비자 :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전자 비자 :

우수인재 및 단체 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발급 대상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종대학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종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발급 절차

1 전자사증의 신청

| | | |
|------------------|-------------|---|
| 전자사증 발급대상자 직접 신청 | 초청기업 등 대리신청 |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 |
|------------------|-------------|---|

2 제출서류 및 요건 확인

·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증 담당자
- 제출서류, 전자사증대상자 및 초청기업 관련 사항 확인 (서류미비 시 보완 요청)

3 허가/불허 결정

· 전자비자센터 -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불허 결정

4 발급 여부 통보

·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5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

· 사증신청자(대리인 포함)가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

※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시 연번 2 절차 생략

Resumed issuance of short-term visiting visas (C-3) and e-visas to help revive the domestic tourism industry



Resumed issuance of short-term visiting visas (C-3) and e-visas

On June 1,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resumes issuance of short-term visiting visas (C-3) and e-visas for foreign tourists that was temporarily suspended on April 13, 2020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More specifically, issuance of short-term visas (C-3) and online issuance of e-visa for foreigners from Level 1* countries will be resumed. Short-term visiting visas (C-3) that used to be issued only to visitors with special purpose will now be issued to visitors with all purposes including group and individual tourism, visiting relatives and commercial activities, and e-visas will also be issued to foreign talents, overseas patients, and group tourists.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s that resuming the visa issuance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viving domestic demand and industries, creating domestic jobs, and attracting foreign talents.

*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Level 1 (require normal caution) and Level 2 (require increased caution) countries based on their level of disease prevention risks.

What are short-term visiting visas (C-3) and e-visas?

Short-term visiting visas: Visas issued to those who wish to visit the country for 90 days or les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market research and consultations, tourism, medical care, visiting relatives, attending meetings, etc.

E-visas: Visas that can be applied and issued online in a timely fashion to foreign talents and group tourists, etc.



Those eligible for these visas

- △ Professional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 * Professor (E-1), Researcher (E-3), Technical Instructor (E-4), Professional (E-5), persons who received a reference for employment by KOTRA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or material/component/equipment industry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 △ Overseas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or caretakers (C-3-3, G-1-10)
- △ Those who wish to enter the country frequently for commercial purposes (C-3-4)
- △ Group tourists whose visas are applied by an overseas travel agency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and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C-3-2)
- △ Persons who are admitted to masters/doctoral courses in universities certified as high-quality schools in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D-2-3, D-2-4)
- △ Overseas scientists who are invited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a certified schools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C-4-5)

Visa issuance process

1 Application for an e-visa

- An eligible person applies for an e-visa
- A company inviting the visitor applies for a visa on his/her behalf
- Application submitted via Korea Visa Portal (www.visa.go.kr) - Submit application information and pay fees

2 Examination of submitted documents and of requirements

- Personnel in charge of visa application at an immigration office - Check submitted documents and information on the company applying for invitation and the visitor (request for supplementary documents if needed)

3 Determination of approval/non-approval

- E-visa Center - Determine approval/non-approval based on the screening result

4 Notification of issuance

- Notify the screening result to the applicant

5 Printing a Visa Grant Notice and entry

- The applicant (or his/her deputy) prints out a Visa Grant Notice and enters the country.

※ Step No. 2 is omitted when issuing e-visas to group tourists.



나라와 나라를 잇는 1인 문화원을 꿈꾸다

네팔인 수잔 샤키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출신인 수잔 샤키야는 그 누구보다 충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2010년 어학연수를 계기로 한국 땅을 밟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하다. 최근에는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라는 책을 펴내며 작가로서의 여정도 시작했다.



네팔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시선

수잔 샤키야(이하 수잔)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역시 JTBC의 <비정상회담>을 통해서다. 2014년부터 종영 때까지 네팔 대표로 참여한 그는 같이 출연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방송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에게 남모름 고민도 있었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멤버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각자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이었어요. 그저 한 명의 네팔인으로서 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말이 네팔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종종 제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

이것은 수잔이 네팔에 관한 책을 쓰는 데 영향을 끼쳤다. 언젠간

네팔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그는 서점에서 네팔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도 했다. 히말라야 이야기만 가득한 책장을 확인하곤 진정한 네팔에 대해 알리는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히말라야라는 산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집에 있을 때면 자신이 알고 있는 네팔에 대해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연습을 했다. 좋은 인연이 닿아 알베르토 몬디에게 출판사를 소개받고 초안을 쓰면서 벽에 부딪혔던 것은 다름 아닌 ‘제목’이었다. 자신이 태어나 24년 동안 살았던 나라지만 그가 아는 네팔도 결국 주관적인 시선이었고 단편적이라면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졌다. 네팔을 대표하는 수잔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네팔에 살았던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주관적인 의견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탄생한 제목이 바로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다

수잔은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었고 고된 시간이었다. D-4라는 어학연수 비자부터 시작해 D-2, E-7, F-2, F-5 비자로 갈아타는 과정은 지난하기 그지없었다. 촬영을 한 번 할 때마다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받는 일도 굉장히 번거로웠다. 고민하던 어느 날 네팔인들 중 서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 목표가 생겼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서 영주권을 받은 또 한 명의 네팔인이 되겠노라고 두 번의 낙방 끝에 작년, 드디어 영주권이 그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영주권보다 귀화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190여 개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나라죠. 그럼에도 귀화보다 영주권을 먼저 시도한 이유는 제가 아직은 네팔을 많이 사랑하고 제 가족도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정착한 이유

사실 수잔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신과 이 나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잔의 고생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6개월여 어학연수를 하고자 한국에 첫발을 내딛었다. 언어를 전혀 모르던 그

에게 온통 한국말로 된 공항서류는 어려웠고,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잘못 제출해 공항 직원과 마찰이 생겼다. 처음 온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패닉 상태가 된 24세 청년은, 저쪽으로 가보라는 직원의 손짓에 들고 있던 가방도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공항에서는 영문모를 쫓고 쫓김이 시작됐고, 결국 보안직원이 나서고 통역이 온 후에야 서로의 오해가 풀렸다. 이런 황당하고 웃픈 상황을 겪고 겨우 인천공항 밖으로 나가니 밖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네팔에 살며 한 번도 눈을 본 적 없던 그에게는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이곳에서 살려면 각오 단단히 해라.”

6개월만 여행하자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던 수잔이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도 처음엔 이렇게 오래 한국 생활을 하게 될 줄 몰랐다. 힘든 타지 생활에 고국으로 도망갈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점점 정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왔고, 그들과 부대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끈기도 생겼다. 한국어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어와 네팔어의 어순이 같다 보니 비교적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보다 깊게 탐구하게 되면서 점차 문화와 풍습, 역사, 사람과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점점 한국과의 인연이 깊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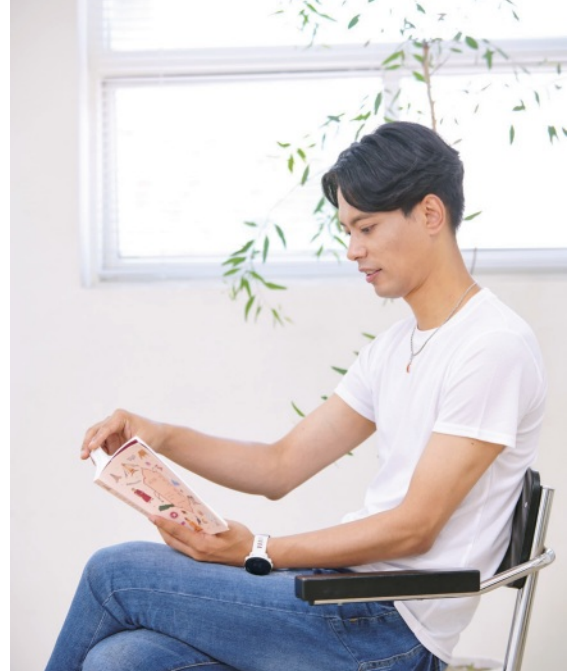
네팔을 대표하는 수잔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네팔에 살았던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주관적인 의견임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탄생한 제목이 바로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다.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

이제는 무언갈 설명할 때 한국어가 가장 편하다는 수잔. 그렇기에 더욱 한국말의 미묘한 어감 차이를 정확히 느낀다. 일례로 ‘다문화’ 가족을 들어보자. 초반에는 그 단어가 한국에 와 있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 단어가 통용될 때의 좋은 취지와 달리, 그 어감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다문화’라는 말이 실제 시민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주민 혹은 결혼 이민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인식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꼬리표가 붙고 무시와 따돌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났다. 가끔 선진국에 대한 선호와 맞물려 개발도상국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 이런 일례를 보아온 13년차 재한 외국인으로서 그에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생겼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인종차별이 없을뿐더러 ‘정’이라는 특유의 유대감이 존재한다. 한국 사람들이 약소국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각자의 문화를 배려한다면 그 관계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무엇보다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네팔을 알리는 1인 문화원

현재 군용 낙하산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잔은 이밖에도 다양한 방송, 강연, 통·번역, 유튜브, 팟캐스트, 집필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재한 외국인을 돕는 일에도 나서서 통·번역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행 브이로그를 선보였던 유튜브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쉬고 있지만, 곧 재정비해서 꾸밈없는 네팔의 일상을 소개하는 알찬 콘텐츠로 돌아올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네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리는 네 팔어 팟캐스트도 시작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다. 주변에서도 많이들 “피곤하지 않느냐”고 걱정의 목소리를 건넨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마치 선물과도 같아서 이 시간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해 보고 싶은 모든 것을 끈기 있게 해 나가자’고 생각한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 수잔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나의 문화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그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 네팔을 소개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우리나라 난민 제도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사유로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며 우리의 난민 제도를 알아보자.



01 난민협약 가입 및 난민법 제정 계기

난민에 관해서는 1951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기본적인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해 1993년 3월 3일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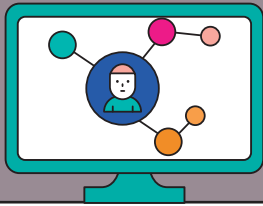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을 최초로 신설했고,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을 제정,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와 같이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난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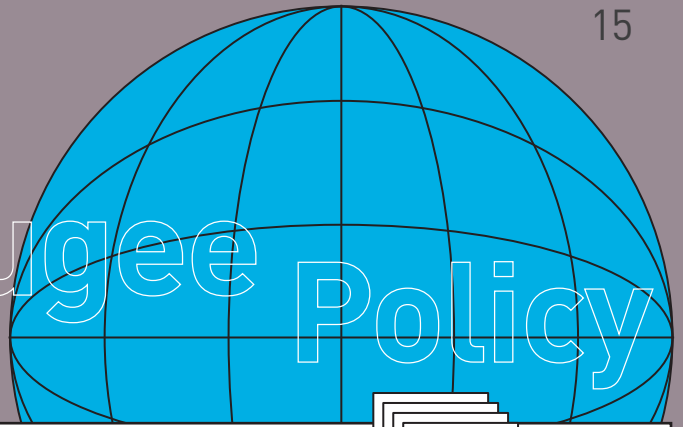


※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업무 처리 현황

1994년 난민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1년까지 총 73,383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철회된 19,805건을 제외한 총 41,409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163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41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여, 결과적으로 총 3,575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Refugee Policy



02 다양한 난민 제도 알아보기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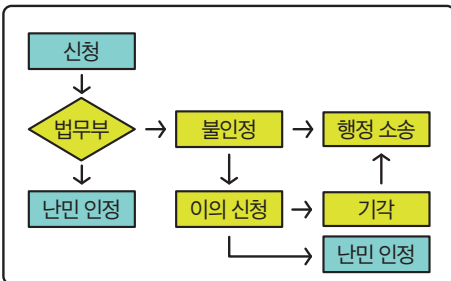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며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난민인정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해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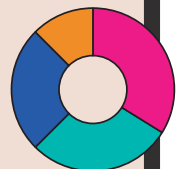
인증제도는 통역 교육과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받은 전문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민심사단계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된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4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여 지역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 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 교육 후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난민과 Refugee Department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김민서 주무관



난민전담공무원의 VLOG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가 만든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전국 6개 난민심사 거점기관 중 하나로 수도권 관할 난민신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난민과에는 난민신청접수, 난민심사, 난민소송 등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본국에서의 박해를 주장하는 난민신청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국가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의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는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감도 막중하다.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면접을 이어가는 김민서 주무관을 따라 그의 하루를 들여다봤다.

V-log



AM 8:40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난민과는 일반적인 9 to 6 근무 체계이지만, 심사담당자는 면접 일정에 따라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9시에 오전 면접을 잡고 20분 전 출근해 준비합니다. 난민신청인, 통역인과 합의만 되면 면접 일정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난민심사 업무의 특징 중 하나죠.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AM 10:00 면접 준비



AM 10:00

면접 준비

충실한 면접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난민신청 시 작성한 신청서,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및 체류 사항,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국가 정황, 신청인과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소송 판결 등 다양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면접 조서 초안을 작성해 두어야 해요. 또 면접을 준비하는 틈틈이 다음 면접 일정을 잡기 위해 새로운 신청인과 통역인에게 연락하는 일, 면접에 무단 불출석한 신청인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AM 9:30

면접 조서 보고

오전 면접이 없는 날에는 과장님께 전달 작성한 면접 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이때 과장님께서 인과관계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다음 면접 시 유의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시죠. 심사담당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근거가 조서에 충실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 과정을 통해, 혹은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좋은 면접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AM 8:40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난민과 직원들은
항상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AM 9:30 면접 조서 보고

난민신청자의 사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공부를 지속하여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9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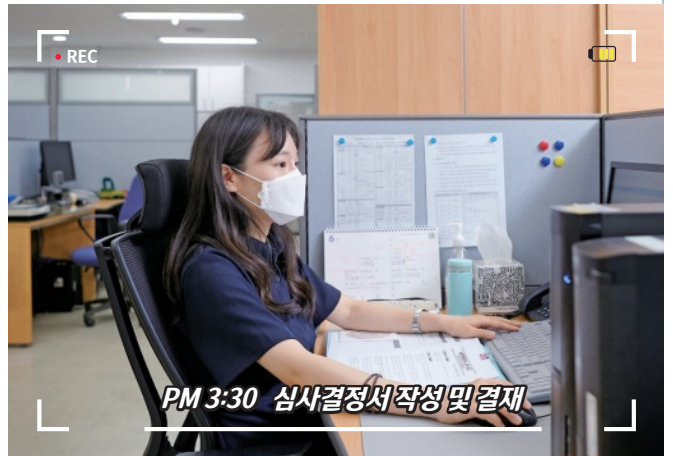
행복한 점심시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는 직원들
을 위한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매
일 식단이 바뀌고 자율배식 방식
이라 좋아하는 반찬을 양껏 먹을
수 있어 팀원들 모두 애용합니다.
역시 점심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면접 시작!

면접은 면접실에서 신청인, 통역인과 약속한 시간에
진행합니다. 신청인에게 인적사항, 가족사항, 경력사
항, 박해사항, 난민신청 경위 및 한국 체류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남
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이 빨리 끝나면 2~3
시간 만에 이뤄지기도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특
히 중동과 아프리카권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면접이 여러 차례 이뤄지기도 합니다.



심사결정서 작성 및 결재

면접 후에는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 및 신청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
을 판단하기 위해 국가정황 조사, 사실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난민인정결정 혹은 난민불인정결정 의견이 담긴 결정서를 작성
하여 결재를 받습니다. 결정이 어려운 경우 부족했던 질문을 정리
하여 다른 날 추가 면접을 실시하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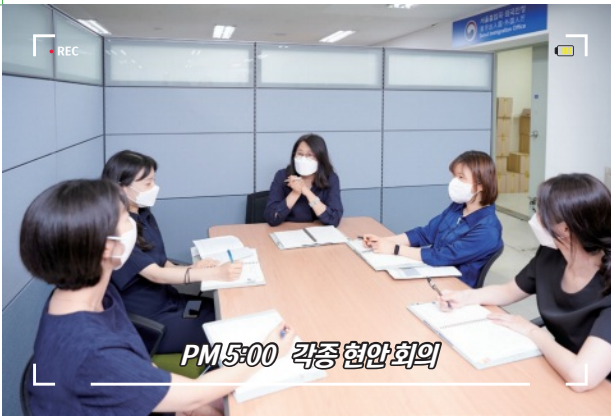




PM 5:00

각종 현안 회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미얀마 사태와 같은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 최신 국가 정황을 공유하고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사담당자끼리 모여 회의를 합니다. 보통 심사담당자 중 누군가는 늘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심사담당자들의 마지막 면접까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PM 6:00

드디어 퇴근!

이렇게 업무가 마무리되면 드디어 퇴근입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면접이 오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놓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난민과의 하루를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민서 주무관의 한마디

“각자의 사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난민전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난민과에 2년 가까이 있었지만 난민심사 경험은 오래되지 않아 부족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또 다른 외국인들의 사연을 더 잘 이해하고 물어보기 위해 개별 국가의 정치, 문화, 종교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여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을 찾은 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경기 서남부 권역의 중심 사무소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최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안산출장소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민원인에게 보다 내실 있는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았다.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되다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승격되며 관할범위가 확대되고, 종합적인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올해 3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안산출장소에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됐다. 이번 승격으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범위가 기존 안산·시흥 2개시에서 광명·안양·군포시까지 5개시로 확대됨으로써 경기도 서남부 권역의 중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거듭나게 됐다. 관할지역 확대에 따라 관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기존 13만 8천여 명에서 16만 6천여 명으로 약 20.3%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사무소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담당업무도 확대돼 종합적인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체류 업무, 사증발급,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범처리(과태료 및 범칙금) 외에 국적 신청 접수 및 심사, 난민접수, 사회통합, 외국인 조사업무 등이 추가됐다. 덕분에 민원인의 불편함이 대폭 축소됐다. 안산출장소 시절에는 민원인이 국적, 난민 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 포용적 이민정책을 펼치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아울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 국적, 사범업무를 위한 민원접수 창구 7개, 국적 심사 면접실 2개, 수유실을 신설·추가하는 등 민원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체류와 국적업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부일프라자 2층에서, 사회통합 및 사범업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사리수산빌딩 5층에서 진행하고 있다. 방문하기 전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방문 예약을 반드시 해야한다. 최근 부지를 결정하고 단독 사무소를 개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니, 수년 내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문한 소장은 “사무소 승격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국적, 난민, 사회통합 및 조사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방문하는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포용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첫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지난 4월 20일에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승격된 후 실시하는 첫 국적 수여식이 열렸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원 및 시간을 3회로 나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규모로 진행했다. 이문한 소장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여 레티훙(베트남인) 등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 3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이문한 소장은 “우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3월 21일 승격된 후 처음으로 국적 수여식을 갖게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국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으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막중하다는 점을 늘 가슴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Chief INTERVIEW

“포용적·친화적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서남부 권역의 중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문한 소장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승격되어 안산, 시흥뿐만 아니라 군포, 안양, 광명까지 5개 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약 17만 명의 외국인이 관내 등록돼 있는데 그중 10만여 명이 동포일 정도로 유독 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국 사무소 중 가장 많은 등록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우리 사무소의 자랑스러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OOOO 이다”



처음처럼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우리 사무소 직원들의 모습이 출장소였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서 '처음과 같다'고 느낍니다.
• 관리과 문예원 반장



다문화 정책의
선도자

안산은 외국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무소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입장에 놓여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 관리과 신용준 계장

가족같은 분위기

안산사무소는 언제나 활기칩니다. 젊은 직원들도 많아 같이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정말 한 가족 같습니다.
• 조사과 김동현 계장



생생한 사무소

이제 갓 탄생한 신생 사무소인 안산사무소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열정 넘치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조사과 신호림 반장



제 15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우리 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오늘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현장

지난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이웃을 보듬어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15번째 생일을 맞은 세계인의 날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내·외국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였고,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동북아시아 사무소 대표 등 주한 국제기구의 대표, 역대 올해의 이민자 상 수상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국적 사물놀이단 엑스팻츠의 신명나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기념식은 전 KBS 김현옥 아나운서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활동 중인 스테파니 바레토 씨가 맡았다. 김현옥 아나운서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스테파니 씨는 일반인임에도 능숙한 영어 순차 통역으로 기념식의 수준을 한층 더 올려주었고, 주제 영상 상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유공자 포상, 재한 외국인 미담 및 정착 사례 발표, 축하공연 등이 물흐르듯 이어져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공존·화합·번영이라는 세계인의 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은?’이라는 주제로 상영된 세계인의 날 기념 영상에서는 다양한 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헝가리 출신 토마스 씨와 가족,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하피즈 씨, 한국인 장모님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가나 출신 사위 안토니오 오우수 씨, 치어리딩 한국 대표로 활동했던 말레이시아 출신 뇌인인 씨, 아제르바이잔 출신 귀화인 서울시 공무원 니하트 씨,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프랑스

인 엘로디 씨 등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채 우리의 이웃으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재한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진한 울림을 선사했다. 이어진 축하영상에서는 <비정상회담>, <대한외국인> 등 인기 TV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영상을 통해 세계인의 날을 축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1년 기준 국내 이주 배경 인구 비율이 총 인구의 4.2%에 달하여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닌 ‘우리 속의 세계’로 변했다”며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포상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총 14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은 사단법인 릴리희 명예회장인 엠마 프라이싱거 여사가 수상했다. 프라이싱거 여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간호사로 근무하다 1961년 한국에 입국한 후 55년간 한센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 수호, 복지향상, 인권 보호,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고령으로 인해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프라이싱거 여사는 영상을 통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는 소감과 함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면 사랑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덕담을 전해 감동을 자아냈다. 프라이싱거 여사의 표창은 고국 오스트리아의 앙거홀처 대사가 대리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15th Together Day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은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장영기 대표이사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 등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쓴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대통령 표창 단체 부문에서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 센터가 이주민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김찬기 한국이민재단 국장과 조창섭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텐 올라 발레레브나 고려인마을 가족카페 대표 등 개인 3명, 단체 3팀이 수상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표창에는 배동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개인 4명, 단체 1팀이 수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재한 외국인 미담사례는
우리 이웃의 어려움과,
그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돌아보는 계기를 선사했다.



Symbiose



공존과 화합으로 하나 된 기념식 현장

재한 외국인 미담사례 및 정착사례 발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웃을 도우며 곳곳이 살아가는 재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스리랑카 출신 차민다 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후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활동이 이어오고 있고 큰 부상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찾아 노력한 결과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업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사업가를 꿈꾸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바리올라이 씨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낭독했고,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텐 올라 발레레브나 씨는 최근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을 도운 미담을 들려주어 박수를 받았다. 그 외 더 많은 재한 외국인들의 미담 사례는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 '미담사례집'에서 만날 수 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축하공연은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첫 공연 판소리는 안나 예이츠(독일) 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그녀의 제자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 로르, 김유원과 함께 교수(주인공)의 북소리에 맞춰 사철가와 흥보가 한 대목을 열



Harmonie



창했다. 고운 한복 차림의 네 사람은 아름다운 판소리와 북장단으로 흥을 돋우었다. 다음 무대에서는 재한 외국인들의 중창이 이어졌다. 구희용 현 서울중구구립합창단 지휘자가 수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제자들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완벽한 하모니로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와 ‘홀로 아리랑’을 불러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홀로 아리랑’은 공연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 기념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나라별 다양한 Coffee 커피 문화

현대인의 필수품, 커피도 나라별로 즐기는 방법이 다양하다. ‘아아’를 손에 쥐고 출근길을 재촉하는 친숙한 우리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카페 바에 기대어 에스프레소를 한 잔 털어넣고 발길을 돌리는 유럽 어딘가의 모습도 있다.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닌 수많은 문화를 대변하는 대명사가 된 커피. 알수록 흥미로운 나라별 다양한 커피 문화를 소개한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시작점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 커피의 탄생지답게 재배지가 많고 커피 문화도 발달해 있지만, 이들은 커피가 단순히 음료가 아닌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라고 생각해, 향을 피우며 생두를 씻고 주석 냄비에 볶은 후 나무 절구에 원두를 곱게 빻는 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한다. 일부 원주민들은 원두를 빻아 지방을 섞어 비상식량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열매 겉껍질을 구워 만든 달콤한 향의 ‘키셔(Kisher)’라는 음료를 즐겨 마신다. 일부는 직접 빛은 토기에 커피를 만들기도 하는데, 붉거나 노란색을 띄는 이 토기들은 해마다 메카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브라질, 베트남과 더불어 대규모의 원두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수프레모’가 유명한데,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로 알이 굵고 감미로운 아로마 향과 맛의 밸런스가 훌륭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커피 중추국 중 하나인 만큼 국민들도 커피에 대한 애정이 상당해 어딜 가나 카페가 준비해 있다. 현지에서는 스타벅스보다 후안 발데스 카페가 더 유명하다고 한다. 뜨거운 물에 원두가루, 흑설탕을 넣고 끓인 다음, 살살 저어 가루가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에 있는 맑은 부분만 마시는 ‘틴토(Tinto)’를 자주 마신다.

미국

미국은 ‘보스턴 차 사건’(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 영국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으로부터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켰다.)을 계기로 독립한 18세기 이후부터 커피 문화가 시작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메리카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된 미군들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쓰고 양이 적어 수통의 물에 넣어 희석해서 마신 것이 그 시초다. 1982년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를 창립 하면서 커피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부터 로스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할 수 있었고, 이는 미국의 작은 카페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베트남

베트남은 전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다. 해마다 70만 통의 로부스타 원두를 생산해내는데, 로부스타는 주로 블랜드 용이나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1857년 프랑스 선교사가 커피를 전파했으며 1975년부터 본격적인 커피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생산·수출량을 높여가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는 커피를 우릴 때 필터보다 카페 핀(Cafe fin)이라 불리는 미세한 구멍이 난 용기를 사용한다. 카페 핀에 원두를 첨가해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방식인데, 1시간 이상 천천히 우려내기 때문에 깊고 진하며 쓴맛이 강하다. 무더운 날씨 탓에 신선도 높은 우유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이 진한 커피에 얼음, 연유를 넣어 먹는 것이 정착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커피 문화는 16세기 오스만 제국 증반기에 시작됐다. 튀르키예식 커피는 제즈베 혹은 이브릭이라고 불리는 작은 주전자에 곱게 분쇄한 커피가루와 물을 넣고 끓여내는 방식이다.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계피가루를 함께 넣어 끓이기도 한다. 곱게 갈린 커피 찌꺼기 그대로 서빙되는데, 잔 밑으로 커피 가루가 가라앉은 후 액체만 마시면 된다. 튀르키예식 커피의 전통은 그 자체가 환영과 우정, 배려를 상징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0년 동안 기억한다”는 튀르키예 속담은 튀르키예 문화에서 커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비록 원두를 생산하진 않지만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다. 약 400여 년 전 베네치아 상인이 튀르키예에서 커피를 들여와 유럽에 중개무역을 했고, 보다 빠른 커피 추출을 위해 세계 최초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발명했다. 커피를 파는 곳이 카페와 에스프레소 바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에스프레소 문화가 발달했다.

데미타세(Demitasse)라는 조그만 잔에 담아 마셔야 제맛인 에스프레소는 공기를 압축해 짧은 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양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아침 출근 전 바에 들러 한 잔, 점심 시간에 잠시 들러 한 잔, 퇴근길에 한 잔, 그냥 길가다 한 잔, 이렇게 수시로 마시기 때문에 골목 곳곳에서 에스프레소 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예술가들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커피다. 쟁쟁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프랑스의 카페 문화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제르맹데프레 지역에 위치한 ‘카페 드 플로르’는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와 마담 보부아르의 아지트였고 ‘어린왕자’의 생텍쥐페리도 이곳의 단골이었다. 피카소의 안식처였던 ‘카페 레 뒤 마고’, 헤밍웨이가 사람들을 관찰했던 ‘르 돔’ 등 당시 카페는 예술가들의 영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카페에서 담론문화를 즐기며 보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오레’가 발달했다. 카페오레는 우유를 넣은 커피라는 뜻으로 보통 카페라떼와 비슷하지만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는 반면, 카페오레는 드립커피에 우유를 넣는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 영화로 보는 '공존'의 방식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재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영화들에 주목하자. 편견을 넘어 친구가 되어 가는 따뜻한 이야기부터 색다른 시선으로 전하는 유쾌한 이야기까지.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친구'가 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이옴의 생일파티 2019

감독 배채운
출연 강희우, 이종휘
24분. 15세 관람가.

12월 마지막 날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이옴의 생일이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동료와 한국인 친구들은 이옴의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선다. 이들이 하루 동안 겪는 일화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겪는 삶의 애환을 조명했다.



파파 2012

감독 한지승
출연 박용우, 고아라
118분. 12세 관람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매니저 춘섭(박용우)과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여섯 남매가 생존을 위해 가족으로 뭉치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 인종과 언어가 제각각 다른 이들이 문화-언어적 차이를 뛰어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다.

마이 리틀 히어로 2013

감독 김성훈

출연 김래원, 이성민

135분. 전체 관람가.

음악감독 유일한(김래원)이 브로드웨이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난 다문화가정 소년 영광(지대한)과 팀을 이뤄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다. 속물적이던 주인공이 편견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로니를 찾아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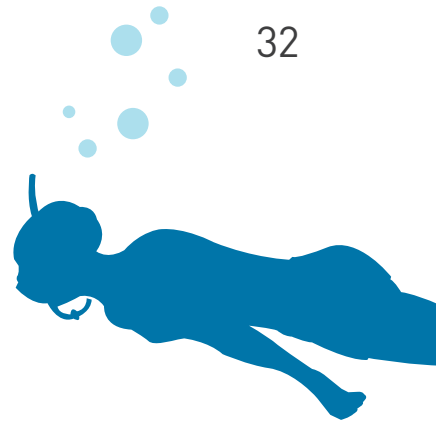
감독 심상국

출연 유준상, 로빈 쉬엑, 이마뿔

92분. 15세 관람가.

태권도장 사범인 인호(유준상)는 관원 모집을 목표로 전 재산을 다 털어 시범대회를 준비한다. 하지만 대회에서 방글라데시의 '체력짱' 로니(이마뿔)에게 한방에 나가떨어지고 도장은 망할 위기에 처한다. 복수심에 불탄 인호가 로니 친구 뚜힌(로빈 쉬엑)과 함께 로니를 찾아 나서 는 과정을 통해,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자유롭고 고요하게 유영하는 프리다이빙의 세계



잠수 장비의 도움 없이 무호흡으로 물속 세상을 즐기는 프리다이빙이 최근 인기다. 해양생물과 함께 유영하며 신비한 바닷속을 탐험하는 일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차츰 해외 다이빙 명소를 오갈 수 있게 되면서 프리다이빙을 배우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1

자유로운 물속 탐험을 하고 싶다면



프리다이빙은 자신의 숨만으로 수중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산소통 등 공기 공급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빙 마스크와 핀 정도만 착용하고 잠수한다. 역량에 따라 물안경과 전신 잠수복까지 배제하기도 한다. 자유롭게 물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딱히 장비가 중요하진 않다.

수면에서 호흡 후 길게는 몇 분간 물속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숨 참기(스태틱, Static) 능력이 요구된다. 준비 호흡과 이완 호흡, 최종 호흡과 회복 호흡의 네 단계에 거쳐 숨 쉬고 싶은 욕구를 늦추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준비·이완 호흡 단계에서는 무호흡 상태에서 산소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빙 전에는 최대한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최종 호흡을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와서는 회복 호흡을 해야 한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블랙아웃(졸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회복 호흡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숨 참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누구나 꾸준히 연습하면 3분 정도 가능해진다. 물속에서 움직이며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본인 기록의 약 2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3분 숨 참기가 가능하다면 물속에서 1분 30초 동안 유영할 수 있다.

#2

프리다이빙의 핵심, 이퀄라이징



프리다이빙의 특징은 무호흡과 이퀄라이징에 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다이버 신체의 공기 공간은 큰 수압을 받게 된다. 높아진 외부 압력과 동일하게 공기 공간의 압력을 맞춰주는 것을 압력평형, 혹은 이퀄라이징이라고 한다. 이퀄라이징이 안 되면 귀가 찢어질 듯 아프고 고막이 다칠 수 있다. 따라서 귀의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중이’가 수압에 눌려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초보 다이버들이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기 힘든 이유도 숨 참기보다 이퀄라이징이 안 되기 때문. 프리다이빙은 이퀄라이징 방식 중 주로 ‘발살바’와 ‘프렌젤’을 쓴다. 발살바는 코를 잡고 ‘흥!’ 하고 코를 푸는 느낌으로 복부나 횡격막의 수축을 이용해 압력을 맞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심 10~15m를 넘어갈수록 후두개 근육을 움직이는 프렌젤 방식이 요구된다. 프렌젤은 목젓 혹은 혀뿌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입안의 공기를 쓰는 방식인데, 익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후두개 근육을 타고난 사람들은 입수하자마자 바로 되기도 하지만, 보통 짧으면 하루, 이틀에서 길면 2~3주 이상 연습이 필요하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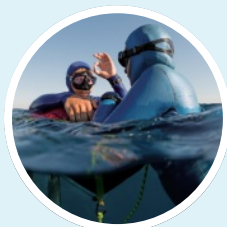
안전하게 프리다이빙 즐기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스포츠는 언제나 위험하다. 프리다이빙은 반드시 2인 1조로 '버디'(다이빙 동행)와 함께해야 한다. 지난 2015년 프리다이빙계의 여왕으로 불리던 나탈리아 몰차노바가 훈련 도중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프리다이빙 관련 세계기록만 40여 차례에 핀 없이 71m를 잠수할 정도로 뛰어났던 그녀였지만 35m의 수심에서 홀로 실종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1조를 지켜 프리다이빙을 즐겨야 한다. 또한 본인 한계에 대해 자각하고 수심과 거리를 서서히 늘려가야 안전하다. 깊이 내려갈수록 나중에 올라가야 할 거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하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금물이다.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하다. 강사가 동행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지만, 강사 없이 잠수풀에 들어가려면 AIDA나 PADI, SSI 같은 프리다이빙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필수다. 기관마다 레벨

명칭이나 이수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격증은 4단계로 나뉜다. AIDA 기준 레벨 1은 잠수풀 입수만 가능, 레벨 2부터는 바다 입수가 가능해진다.



본격적인 프리다이빙 배우기

① 준비 운동

이론을 배웠으면 실전에 돌입할 차례. 준비 운동과 폐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폐는 수심 60ft(약 18m)만 내려가도 기존의 3분의 1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수압으로 폐가 쪼그라들 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폐 스트레칭이 요구된다.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숨을 가득 들이마셨다가 내쉬기,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뒤틀기 등의 동작으로 폐를 감싼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보자.

② 물과 친해지기

수영복과 슈트를 입고 마스크나 스노클, 핀을 착용하면 물에 들어갈 준비 완료다. 대부분의 잠수풀에서 슈트, 핀, 웨이트 벨트 등 장비를 빌릴 수 있다. 물에 적응하기 위해 먼저 마스크 쓰는 법, 마스크 쓴 채 입으로 숨쉬기, 스노클을 입에 물고 호흡하기 등을 천천히 배워보자.

③ 본격 연습 시작

수면에서 숨을 참는 스태틱부터 스노클 물빼기, 핀을 끼고 발차기하는 피닝, 로프를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프리이멀전(FIM), 입수 기술 중 하나인 덕다이빙 등을 차근차근 익혀보자. 특히 프리이멀전을 하며 이퀄라이징이 잘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참은 채 로프를 잡고 내려가면서 계속 이퀄라이징하며 귀를 뚫는 연습이 필요하다. 덕다이빙은 머리를 하체보다 먼저 집어넣으면서 입수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잠수하는 모습과 비슷해 이렇게 불린다. 이퀄라이징이 안 된 상태에서 덕다이빙을 하면 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조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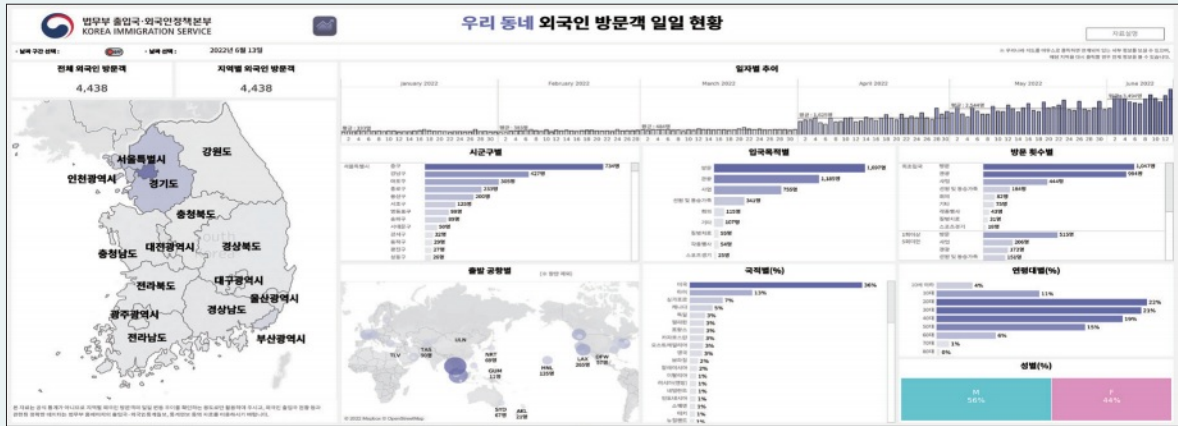
④ 버디와 물속 탐험

훈련을 마쳤다면 이제 물에 온몸을 맡길 시간. 안전을 위해 2명이 버디를 이루어 2인 1조로만 입수할 수 있다. 고요한 수중에서 자신의 호흡만으로 몸이 가는 대로 유영하다 보면 어느새 평온해진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 동네엔 외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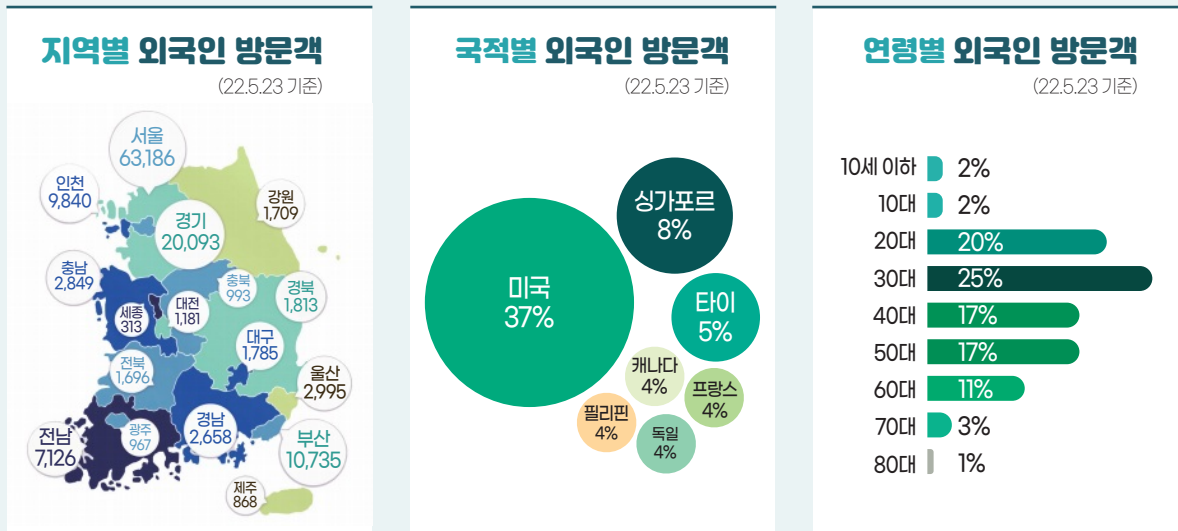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통계 자료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 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 화면



• 비자 없이 단기 체류자격(사증면제, 관광·통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항공기 승무원 등 제외)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 예정지, △입국목적(관광사업, 회의 등), △출발지 국가·공항(항공편), △최초입국자·빈번입국자 비율 등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통계를 일단위로 분석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통해 제공한다.

일일 외국인 방문객 변동 추이 주요내용 대상: 단기체류(사증면제, 관광·통과) 자격으로 국내입국하는 외국인 승객



발전 방향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으로 관광·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공감인들.
공감인들이 민원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자신 있어 하는 공감 노하우를 소개한다.

첫 업무의 미숙함을 친절히 돕는 너그러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윤호준 주무관
체류업무 담당

저는 현재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증 업무 및 변동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근무하게 돼 업무가 미숙한 탓에 실수가 많았고, 이에 윤호준 계장님에게 많이 여쭙고 해결할 것이 많아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주셨고 '원래 유학생 업무가 까다롭고 어려워 익숙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며' 다독여주셨습니다. 업무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실수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히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신 그 마음처럼 저 또한 관련 업무에 대해 물어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계장님과 같이 친절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신○○ 씨

공감 노하우

저의 응대 노하우는 '먼저 들어주기', 'No보다는 Yes', '최적의 방안 찾기'입니다. 민원인들 가운데 정보 미비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불만을 갖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이야기를 먼저 경청하고, 안된다고 하기 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안내하려 노력합니다. 그 결과, 우리 기관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업무 지침 등 관련 사례를 좀 더 확인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업무 능력이 향상되며, 민원인 응대 시 더욱 자신감이 생겨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체류연장을 돕는 친절함 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다인 주무관
체류업무 담당

저는 체류연장 이슈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아버지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권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다인 주무관님이 문제도 잘 해결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언젠가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을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주무관님의 친절함 모습이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늘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 씨

공감 노하우

저의 응대 노하우는 민원인을 밝은 인사로 맞이하고,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려 경청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려 최대한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 및 그 취지를 설명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IS NEWS

1

법무부-산업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4. 19.)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 외국인이 취업 활동할 수 있는 비자로 조선업 관련해서는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4개 직종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적용되어 온 쿼터제가 폐지되어 직종 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2022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본 교육 과정은 실무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중심으로 운영했다.

또한,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교육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보유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데이터기술(Data Technology) 기반의 외국인 정책 고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3

양양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법무부는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4개국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하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제도를 '22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까지(단, 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4개국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 시행 기간('22. 6. 1. ~ '23. 5. 31.) 동안에는 아래 조건을 갖춘 단체관광객에 한해서는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동 제도를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전담 가이드 안내하에 15일 범위 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4

'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정부는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여 올해 총 114개 지자체에 19,718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5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6월 20일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난민의 날'은 UN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유엔총회 특별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날이다.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담당,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학계·법조계·이민정책연구·난민지원단체 등 난민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난민지원단체는 낮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제도 개선과 난민심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고, 학계는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법조계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사회를 대비하는 난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년,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의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며, 향후에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며 균형 잡힌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VENT #1

독자 의견

2022년 <공존> 여름호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글이나 흥미로웠던 콘텐츠가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2년 7월 21일(목) ~ 8월 10일(수)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경품 이벤트

다양한 독자 의견을 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2년 8월 26일(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어 이메일 또는 아래 QR코드를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최근 출장소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하며 경기도 서남부 권역의 중심 사무소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어디일까요?

- 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②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③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④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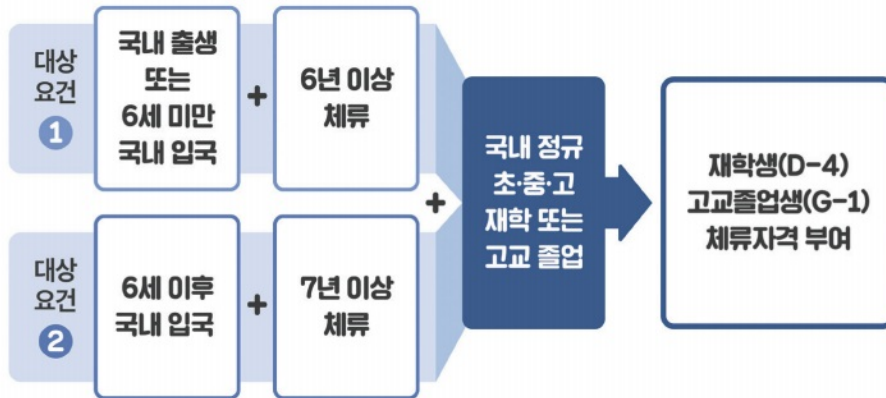
보내실 곳 아래 QR 코드 참여
정답 마감 2022년 8월 12일(금)
문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19)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왼쪽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국내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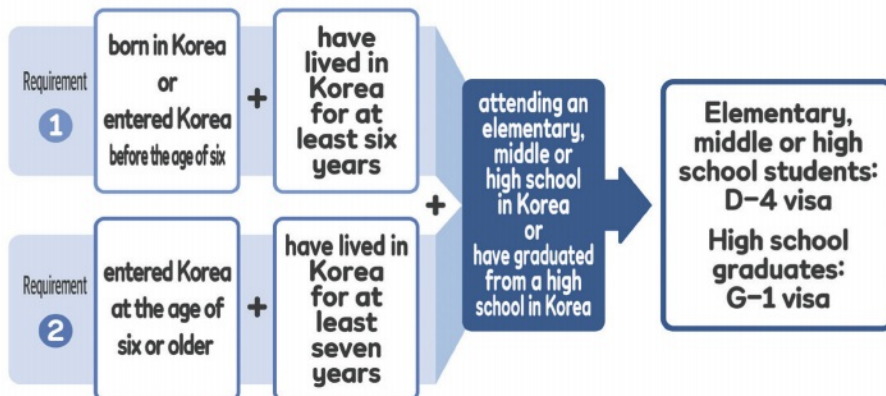


2022. 2. 1. ~ 2025. 3. 31. 한시적 시행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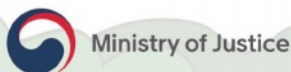


Expanded Visa Eligibility for Foreign Children Having Formal Education in Korea: How It Works



Effective from February 1, 2022 to March 31, 2025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without area 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